

주간 테러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23. 12.8(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유럽

- 佛, 이슬람주의 프랑스인 무차별 흉기테러
 - 12.3 언론은 파리 센강변에서 괴한이 행인들을 공격해 獨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최소 2명의 부상자 발생, 용의자는 경찰에게 “가자지구에서 많은 무슬림이 죽어가는 것에 분노한다”고 증언했다고 보도
 - ※ 한편, 파리올림픽 조직위가 내년 7월 26일 同지역에서 올림픽 개회식을 준비하고 있어, 해당사건 발생으로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부언
- 英, 인질구출을 위한 가자지구 상공 무인 드론비행 발표
 - 12.4 언론은 英 국방부가 하마스에 납치된 자국민을 포함한 인질 구출을 위해 비무장 무인드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상공에서 작전수행을 비롯한 순회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 ※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겨냥한 집단 학살전쟁에 영국군이 가담했다”며 반발하고 영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재고하도록 촉구
- EU, 이-하마스 전쟁 여파로 연말 테러 위협 증가 경고
 - 12.6 언론은 「일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에서 “성탄절 휴가철을 앞두고 이-하마스 전쟁이 촉발한 극단화로 유럽 내 테러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고 보도
 - ※ EU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배경에는 12.2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있다고 부언

미주

- 美 FBI, 올해 만료되는 도·감청법 연장 요청
 - 12.6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이 커졌으며, 영장 없이도 외국인의 이메일·통화 내용을 볼 수 있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연장을 美상원에 요청
 - ※ 해당 법안은 외국인과 통화한 미국인도 감시받게 되어 도·감청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민주·공화당 모두 법안 연장에 우려를 표함

아 · 태평양

- 호주, 스파이·테러가담 복수국적자 시민권 박탈 再추진
 - 11.30 언론은 호주에서 스파이·테러활동에 가담한 복수국적자의 시민권을 내무부장관이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판결이 나오자, 이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再추진한다고 보도
 - ※ 반면, 진보성향의 녹색당은 법안을 너무 서둘러 의회를 통과시키려 한다며 비판

중 동

- 이스라엘, 휴전연장 합의 직후 괴한 총격으로 2명 사망
 - 11.30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2명의 괴한들이 출근길 버스정류장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
 - ※ 同 범인들은 팔레스타인 관할 東예루살렘 출신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들과 민간인이 나서 사살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발표
- 예멘 후티 叛軍, 홍해서 美 군함 및 상선 공격
 - 12.4 언론은 지난 3일 예멘 후티 叛軍이 홍해에서 美 해군 구축함 카니호에 드론공격을 시도하고 화물선 등 상선 3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군함·선박 손상이나 승선원 사상은 없다고 보도
 - ※ 美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국제상업과 해양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후티 叛軍에 의한 공격이지만 이란이 지원한 근거가 있다고 규탄

아프리카

- 부르키나파소·니제르, 반지하디스트 G5 사헬연합군 탈퇴
 - 12.3 부르키나파소·니제르 軍政은 성명을 통해 G5 사헬연합군*의 모든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으며, 언론은 최근 3년 이내 軍政이 들어선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3국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보도
 - * 西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이슬람 급진세력과 연계된 무장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말리·니제르·부르키나파소·모리타니·차드 5개국이 연합군을 창설

美, 캘리포니아州 샌버나디노市 총기테러사건

- '15.12.2 美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市의 발달장애인 복지 및 재활시설 '인랜드 리저널 센터(Inland Regional Center)'에서 파키스탄 출신 부부*가 무차별 총기난사, 14명 사망·22명 부상
 - * 남성(시예드 리즈완 파룩)은 파키스탄계 미국인으로 보건국 직원이었으며, 여성(타슈핀 말릭)은 파키스탄 태생으로 영주권 소지자로 확인
- 용의자들은 총·파이프 폭탄을 무장한 채 복지시설에 난입, 무차별 난사 후 도주하였으나, 4시간만에 경찰의 포위를 받고 이에 저항하다 사살
- FBI는 “이들은 이슬람 테러단체에 영감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로서, SNS에 지하드와 순교에 대한 헌신을 표현했다”고 발표
 - ※ 美 행정부는 타슈핀 말릭(女)이 Facebook에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을 약속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근거로 同 사건을 테러행위로 규정
- 사건의 여파로 美 행정부에서는 총기난사사건 빈도를 줄이기 위한 총기 안전법 및 강력한 신원조사 등 총기규제 논의 再 점화

— <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 > —

- (배경) '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라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90년대 중반 美 극우 인종주의자 '앨릭스 커티스'가 백인우월자들에 대한 독자적 행동 선동에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변화
- (특징) △배후세력 없이 특정 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해 테러를 자행, △소프트타겟(Soft target)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인명피해 우려, △테러 시점·방식에 대한 정보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추적이 어려움
- (주요테러) '95년 미국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테러사건 「티머시 맥베이」, '12년 프랑스 툴루즈 유대인 학교 총기난사 사건 「모하메드 메라」, '13.4월 보스턴 마라톤 테러 「차르나예프」 형제, '14.12월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 인질극 「만 하론 모니스」 등